



Web Contents



2026년 03월 17일 03시 31분

목포시,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운영 본격 시행

2017.12.11 등록자 공보과

- 치매안심센터 임시 운영...내년 2월 트윈스타 행정타운에 정식 센터 개소

목포시가 하당보건지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.

치매상담센터는 최근 3년간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했고, 이중 1,746명을 치매환자로 등록·관리 중이다. 또 2,990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, 복지관어르신 450명에게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.

임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우선 채용·구성해 치매고위험군 및 가족상담, 조기검진등록·관리, 치매치료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정식 센터는 오는 2018년 2월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에 연면적 1,048㎡ 규모로 개소할 예정이다.

신설될 치매안심센터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초기치매 상담부터 1대1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. 교육상담실, 검진실, 프로그램실, 치매가족 카페 등도 운영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돕는다.

시 관계자는 “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활 개선을 돕고, 치매 가정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.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하당보건지소 서청이(270-4014)

첨부파일

목록

MokPo - Si
Web Contents

